



이라크 총리 특사 안바주지사와 TRAC Development Group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의 모습.

TRAC 제공

이라크 국가재건사업 참여... '한국형 신도시' 수출한다

해의 신도시 개발기업 'TRAC'

안바주 재건사업 계약 체결
복합신도시-국제산업단지 건설
"건설업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이라크는 IS와 3년간의 전쟁 결과 2017년 7월 10일 마지막 거점인 모술도시를 탈환하고 이후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고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라크 정부는 2017년 5월, 향후 총 사업 규모 1조달러(1000조원)에 이르는 범국가적 재건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라크가 보유한 다량의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트럼프-美 대통령의 주도하에 68개국 이라크 전후복구 재건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가장 피해가 큰 이라크 안바주를 시작으로 국가재건사업 진행을 확정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낙후된 국가기반 도시 인프라 시설 및 국민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총사업규모 1000조원에 이르는 범국가적 재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TRAC Development Group (TRAC)은 2016년 3월 안바주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총 500억불(60조원) 규모의 '안바주 국가재건사업'에 Master Developer로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9월 25일, '이라크 안바주 국가

재건 500억불 개발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TRAC Development Group의 안바주 재건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는 60만 주민이 거주하게 될 '하바니아 스마트 복합신도시'와 국제물류와 생산 산업 중심의 '하바니아 국제산업단지'를 비롯해 도시 인프라, 주택, 종합병원, 특급호텔, 정부청사, 교육 및 공공시설 등이 있다. 한국의 해외건설시장 구축의 비전은 중동 지역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이라크와 한국간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국민 주택, 도시 인프라, 국가기반시설 개발건설에 참여해 장기적으로 중동 전역의 신도시 개발 시장을 확보함에 있다.

◇하바니아 스마트 신도시 개발건설사업
이라크 정부는 한-이라크 국가재건사업 경제협력 회의에서 '한국형 종합개발 전략 및 성공사례'를 선택했다. 그 이유로 한국은 전쟁 이후 짧은 기간에 국가재건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이며, 국가 전역에 특화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이룩한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출산업 10대 강국으로서 실행경험 및 성공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TRAC Development Group 관계자는 "이는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로, 경제 신대륙인 이라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가적 정책사업, 비전사업으로 신에너지 자원개발을 승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산업단지 건설은 이라크 국가재건사업의 기반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발전의 다양성 확보, 수입대체 상품 생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술관리인력들을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추가고용창출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RAC Development Group 관계자는 "이라크 국제산업단지 건설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21세기는 도시화의 시대이자 일자리 시대인 만큼(산업단지가 있는 신도시) 한국기업의 계획적인 해외 진출은 기업인들에게 해외 진출 확대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전략적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설업의 세계진출을 위한 새로운 모범적 사례
사실상 단순 도급만으로는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해외건설수주의 현실이다. 이에 TRAC Development Group은 '금융 + 개발 + 건설 + 기술' 토털 솔루션을 통해 시너지 시스템으로 저가 수주자가 아닌 합리적 가격 수주 경쟁력을 갖춘 건설 성공사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TRAC Development Group 관계자는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잠재된 건설경기 회복, 해외 개발건설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보해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활성화와 국산 기자재 및 건설장비, 그리고 건설인력의 수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세기는 상생을 위한 협력의 시대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경쟁시대에서 상생을 위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 때이다. 이번 이라크 재건사업의 성공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창출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에너지 개발 등 지하자원개발 시장 확보도 기대해본다.

황여정 CS&E 기자

안바주 하바니아 스마트 신도시(Habaniya New City) 개발건설 사업 현황

발주처	- 이라크 정부 : 안바주정부, 안바 주 의회, 안바 투자청
Master Developer	- TRAC Development Group
사업규모	- 부지 면적: 4000만㎡(1200만평) - 250억불(28조원) - 주택 10만호, 도시 인프라, 국제물류 및 복합국제산업단지, 정부청사, 의료단지, 관광벨트 등 - 단계별 개발: 5단계로 구분, 첫 1단계 시범 5대 사업
사업지	- 안바주 하바니아 호수 북부에 인접, 바그다드 서쪽 60km 위치
주택 수요 인구	- 60만명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기간	- 2018~2029년(총 11년)
프로젝트재원	- 이라크 정부 개발 토지수용권 제공, 에너지 천연자원 담보 개런티 - 이라크 전후복구 재건기금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68개국 전후복구사업 지원 참여
본계약 서명식	- 9월 25일

프로젝트	수주금액	현지직접고용	국내간접고용	합계
하바니아 신도시	500억불	9000~1만5000명	2만4000~3만명	3만3000~4만5000명
알 바스라 신도시	930억불	1만7000~2만7000명	3만7000~5만4000명	5만4000~8만1000명
디카 산업단지	250억불	4000~8000명	9000~1만6000명	1만3000~2만4000명
합계	1680억불	3만~5만명	7만~10만명	10만~15만명

TRAC Development Group은

Master Developer&Investor로서 2010년 이라크 국가재건 사업인 '국민주택 50만호 개발건설'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안바주정부와 사업규모 500억불의 안바주 재건사업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바니아 스마트 신도시', 국제물류 및 생산산업 중심의 '하바니아 국제산업단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바스라주에 930억불 규모의 '알 바스라 신도시'와 '바스라 국제경제 자유구역', 디카주에 250억불 규모의 경공업 중심 '디카 국제산업단지' 등 총 1680억불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여정 CS&E 기자



이라크 투자청 의장 및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라크 재건 50만호 국민주택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문정민 회장

'금융·개발·건설·기술' 패키지 솔루션 제공... 한국·이라크 경제 협력 도모

TRAC Development Group의 창업주이자 현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문정민 회장은 30년간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중동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문 회장은 한국-뉴욕주정부 경제협력 회의 의장을 재임하며 한국과 미국 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1999년 한국 IMF 외환위기 당시 9개 나라에서 다수의 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에 직접투자 포럼을 개최했으며, 114억불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2년에 Michael R. Bloomberg 시장으로부터 뉴욕시민상을, 2003년에는 미국아시아인 연합이 선정한 최고 아시아인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한국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해외경제특사로 활동했으며, 2004년

9월 트럼프 부동산개발회사를 포함한 미국 우수기업들로 구성된 대규모 투자사절단과 함께 한국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벨트 개발 사업에 30억달러 해외투자 유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다양한 국제협력과 경제 활동을 통해,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 회장은 2010년에 TRAC Development Group을 한국에 설립했다.

TRAC은 Developer&Investor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금융 파트너들과 국제적 협력을 이루며 2010년 10월 29일 이라크정부와 국민주택 50만호 개발건설 계약을 체결해 창의적인 개발기획과 혁신적인 금융구조로 '금융 + 개발 + 건설 + 기술'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해 개발 중에 있다. TRAC Development Group은 2014년 IS전쟁으로 모든 개발사업이 중단에 이르렀지만, 전쟁 중에 공사는 못하더라도 전쟁

이 끝난 후 국가재건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라크 정부와 서로 협력을 이뤄 3개주(바스라, 안바, 디카)에 신도시 및 국제산업단지 개발 계획, Master Plan을 TRAC Consortium의 20여 개 기업들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로써 한국과 이라크 간의 경제협력 도모에 일조하고 있다.

황여정 CS&E 기자



TRAC 문정민 회장